

## 토 론

**사회:**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상적인 사전 편찬을 기대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세월에 이 이상적인 사전이 나올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이 나오는데 2,30년이 걸렸고 또 술한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서 시간 절약을 위해 주제발표하신 순서대로 토론자 세 분께서 각각 토론해 주시고 김석산선생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한국어표준발음사전」의 편찬에 참여하신 성균관대학교의 유만근선생, 문법연구 표준어제정 등에 깊이 관여하신 서울대학교의 이익섭선생, A Kusaeien-English Dictionary를 직접 만드신 연세대학교의 이기동선생, 그리고 중세영어사전의 편찬에 역시 직접 참여하셨던 김석산선생 네 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사전에서의 발음표시문제에 대해서 유만근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근:** 음성학에 정통하신 이현복교수께서 이미 주요한 줄거리를 조리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크게 변경하거나 할 것이 없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엽적인 얘기를 조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사전에

서 발음표기가 필요하다, 표기대상은 표준말로 해야 될 것이다, 기호는 한글을 가지고 음성기호로 삼아서 사용을 하고 간략표기(broad transcription)로 한다 등등인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좋은 지엽적인 말씀을 사족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로서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준말을 표기의 대상으로 한다, 이게 말은 쉬우나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 이미 나와 있는 사전에서 표준말이라고 해서 실어놓은 것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표준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첫째는 ‘으’와 ‘어’의 혼동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마는 가령 ‘스다’, ‘서다’, ‘전느다’, ‘전너다’의 경우 제 발음으로는 ‘스다’, ‘전느다’ 그러기 때문에 ‘서다’, ‘전너다’는 귀에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Samuel Martin하고 이양하, 장정은 선생님이 만드신 사전 *New Korean-English Dictionary*에는 ‘스다’와 ‘전느다’를 표제어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용언활용 ‘하는, 하든, 할는지, 하든지’에서 닫힌 모음으로 ‘하는, 하든, 할는지, 하든지’ 하는 활용체계가 있고 ‘으’와 ‘어’

가 분명치 않은 지방, 즉 서울에서 먼 지방에서는 ‘하년, 하던, 할년지, 하던지’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서울말처럼 ‘으’ 하고 ‘어’하고 그 사이에 [ə]가 있어 세 가지로 구별되는 말에서는 글자대로 읽어서 아이들이 ‘하던’, ‘하년’하고 입을 딱 벌리고 하면 아주 이상한 소리가 되지요. 서울말을 쓰는 사람의 귀에는 그렇습니다. 표준말은 ‘하든’을 피하고 ‘하던’으로 하나 살짝 내려서 정했거든요. 그리고 ‘할년지’는 방언의 소리대로 표기한 ‘할년지’를 글에 쓰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희승 선생 「국어대사전」 초판에는 전부 ‘하든’으로 했었는데 민중서림인가 어디 다른 출판사로 넘어간 뒤에 편집자가 편자의 의향을 좇지 않고 ‘던’으로 고쳤다고 그리는데 편자 선생님은 다시 그걸 ‘든’으로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의 표준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조화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적용을 하고 어떤 때는 잘 안 하고…… 대개 지나치게 적용한 예가 많겠지요. 가령 ‘강충강충’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조금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령 ‘가우똥가우똥’은 ‘가’라는 것을 쓰더라도 ‘가오똥’이 안 되거든요. ‘깜쭈깜쭈’, ‘까뭇까뭇, 거뭇거뭇, 꺼뭇꺼뭇’ 하지 ‘까뭇까뭇’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충’만 그렇게 해놓아서 이상한 겁니다. ‘말강다’에는 ‘말경다’가 있는데 모음조화하지 않고 ‘말개’, ‘말게’하고 다 ‘애’로 끝날 텐데 ‘말개’, ‘말게’라 해놓았어요. 또 가령 ‘그렇다’라고 하면 ‘어’라는 모음 때문에 모음조화

영향을 입어서 ‘그래’하고 ‘고령다’라고 하면 ‘고래’하는게 아닌데, 이상하게 사전마다 ‘쁘얏다’는 ‘쁘애’, ‘뿌영다’는 ‘뿌어’ 이렇게 모음조화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허영다’는 ‘허예’, ‘하얏다’는 ‘하애’ 그랬는데 ‘뿌영다’, ‘허영다’만 그렇게 하고 다른 ‘ㅎ’받침 변칙동사는 안 그래서 ‘뿌영다’, ‘허영다’를 저는 잘못잡은 표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전이 그렇게 하면 전부 배겼는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발음 자체에 유동성이 있어서, 아까 이현복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집안 가족끼리도 다를 수가 있고 한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를 국어라고 한다면 외래어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라고 전부 말을 하는데 사전에는 ‘커피’를 찾으면 틀렸다고 하고 ‘코피’를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발음기호 선택문제로 한글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사람을 위한 사전에서는 충분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영한사전, 불한사전, 독한사전 같은 외국어사전에 한글발음기호를 도입해서 초보자들이 로마자 글자 배우기도 힘이 든 판에 발음기호까지 익히자니 힘이 들 때 첫걸음 단계로 그런 기호를 채택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영사전, 한불사전, 한독사전과 같이 우리들이 외국어 공부하기 위해서도 물론 쓰지만 외국인이 한국말 공부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사전에는 I.P.A.를 채택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규모가 큰 사전에 발

음표기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독어독문학회, 불어불문학회에서 끔직한 한독사전, 한불사전을 썼습니다만 전혀 발음표기를 안 했지요. 그러니까 1920년에 나온 총독부 사전에는 장단이랄든지 된소리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데는 별로 없고, 예일대학 한영사전에는 발음표기가 있으며, 제가 본 예는 유일하게 조그만 책인데 휘문출판사에서 나온 「새한일사전」이라는 조그만 책에는 우리말 표제어에 발음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의 체계는 간략표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진 한국사람을 위한 한국어사전에는 물론 그것이 옳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더러 특수목적에 조금 narrow transcription을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외국인용이라든지 학술용이라면 우리나라말에 ‘ㄹ’자에 ‘r’자로 표기하는 것과 ‘l’자로 표기하는 거라든지, 유성음, 무성음도 I.P.A.로 해주면 외국어로서 한국말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학습에 효과가 클 줄 압니다. 영어에도 지금 대개 간략표기로 된 발음표기를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native speaker로부터 거센소리를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령 ‘p’자의 발음을 하라고 그리면 우리나라 학생들 대개 다 거센소리 ‘ㅍ’자 소리를 하고 불란서사람 보고 하라면 또 전부 거센소리를 안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게 거센소리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령 이런 것에 대해서 aspiration을 표기한 어떤 영어발음사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영어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만국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밀표기

란 번잡하고 정말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어떤 특수목적에, 어떤 특정언어를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 언어를 가르칠 때는 정밀표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자와 ‘r’자의 구별, 유성·무성파열음의 구별 따위가 외국어학습에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령 한국어의 로마자표기체제로 머클—라아사위방식 같은 것은 한 음소를 두 가지 글자로 적고 있는데 이것은 표기원칙에 오히려 어긋나고 정말로 missionary phonology예요. 선교사들이 인삼표기를 한다거나, 혹은 군대에서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잘 안 하고 military phonology를 하다가 나중에 몇 십년 되면 학자들이 한 음소에 한 기호를 배당하는 것으로 정돈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만 아직도 조금은 수준이 그 수준에 있지요.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paper’는 첫소리는 거센소리지만 둘째 것은 aspiration이 적지요. 그 다음에 ‘newspaper’는 [z]가 [s]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의 것까지도 약화시켜서 거센소리가 거의 다 없습니다. ‘popie’는 처음에는 aspiration이 있고 뒤에는 없을텐데 우리나라 사람은 ‘뽀빠이’ 아니면 ‘포파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표기범위에서 장모음표기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장단은 방언에 따라 구별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서울말은 어떤 사람 실험에 의하면 긴모음과 짧은모음의 비율이 2.5 : 1쯤 된답니다. 그런데 영어는 2 : 1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것은 꽤 길게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아

주 이상하지요. 아나운서 중에는 한 3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기를 해 가지고 읽다가 너무 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진 부자연스럽게 들리지요.

그 다음에 장단 두 가지로만 하느냐 반장을 놓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 참 복잡하지만 우선 ‘첫눈’이란 걸 가지고 하면 단어로만 떼어서 ‘첫눈’ 이리요, ‘첫 눈에 반했다’의 ‘눈’인지 처음 내리는 ‘첫눈’인지 구별이 안 되고 다 짧아집니다. 그러나 거기 조사가 붙어서 ‘첫눈이 내리고’, ‘첫 눈에 반했다’ 이렇게 문장 속에서 하면 다소 길어지는 게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신대륙’ 이것도 단어로 읽으면 ‘대’자가 길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가령 ‘아메리카 신대륙’ 이렇게 좀 말을 늘여서 신한다면 ‘syndicate’라는, 영어의 ‘America syndicate’ 할 때의 ‘d’자의 길이보다 ‘신대륙’의 ‘대’자가 훨씬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진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하는 변동이 많아서 조금은 구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도 항상 길이가 짧은 적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표기한다면, 변칙용언에 특히 많습니 다마는, 용언활용과 길이를 사전에 나타내 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살다’, ‘살고’는 긴데 ‘살아’ 할 때는 짧아지거든요. 또 사역의 뜻으로 ‘살리다’는 짧고 ‘살겠다, 살리랴’는 길지요. ‘얻다, 얻어, 얻지’나 ‘죽다, 죽어’ 같은 것은 항상 길게만 되니까 활용 할 때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사전에 표시해 주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침 문제인데, 이것은 발음표기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가령 ‘넓

다’ 그러면 서울말은 ‘ㄹ’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면 ‘넙다’하는데 ‘넙적하다’ 그럴 때는 ‘래’를 하고도 ‘넙’을 발음을 하고요, ‘넙적하다’ 이럴 때는 표기법도 ‘ㄹ’만 합니다. 그 밖에 ‘월요일(月曜日)’, ‘결론(結婚)’, ‘갈로(括弧)’라고 하는 등 글자로 적어도 방언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경우, 또 ‘입학’을 ‘이박’이라고 그런다든지 ‘못하고’를 ‘모다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발음 표기를 국내인용이라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이것은 조금 파격적인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조금 편하고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근육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발음을 아울러 표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옛말로 아마 ‘삼기다’가 ‘생기다’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소리대로 잘 나타내 주었으나 ‘웁기다’는 사람들이 ‘윙기다’라고 하지만 그게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참견’을 ‘챙견’이라고 한다든지 ‘검연쩍다’를 ‘계면쩍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발음으로 달아주는 것이 우리 국어의 먼 장래를 위해서, 아주 발음하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자꾸 한자음 원음대로 한다든지, 뒤로 돌리는 바람에 우리말이 세련미가 적고 걸리고 딱딱하고 힘들게 되어 가는데 이것의 흐름을 막지 말고 잘 하면 먼 장래에는 아주 세련미가 있는 발음이 되어 나올 게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엉뚱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전에 발음표기를 1920년에 나온 「조선어사전」, 1938년에 나온 문세영 사전 등 중요한 사전들이 다 했으나 실제 이 사전의 발음표기가 우리 음성언어 순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표기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고 맞춤법에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글은 그 자체로는 우수합니다마는 운용법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서양의 단어가 주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어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nait]하면 두 가지 spelling이 있습니다마는 글자만 보면 뜻이 떠올라서 발음은 즉각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글은 이것을 뜯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내려 쓸 적도 있고 가로로 쓸 적도 있어서 어형이 고정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아랍어 쓰는 것처럼 오른쪽부터 쓰기 시작해서, 삼각지에서 용산역 가는데 같은 전당포집에 간판이 하나는 ‘포당전’이고 하나는 ‘전당포’예요. 그리고 학교버스나 회사버스에 문앞에서부터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왼쪽부터 쓰지 않고 ‘사공발개전하’, ‘교학중벌라서’이래요. 영어는 일단 발음이 어려워도, spelling이 이상해도 공부할 하면 꼭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우리글은 어형이 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공부를 해도 확확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형을 고정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뜻구별에 소용이 닿는 음소나 운소는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표기를 해보아도 실효가 없

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전들에서 발음표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러두기(또는 범례)에서 일반적인 발음규칙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표제항의 표기만으로는 발음을 예측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것을 해당 부분의 발음을 표제항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 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운규칙으로 규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음표시를 하지 않고 그 이외의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발음을 표시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셈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체계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서의 문법정보 처리에 대해서 이 익섭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익섭:** 평소 홍재성 교수의 논문을 늘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오던 방식과 어떻게 보면 꽤 다른 연구를 계속해 오시는 데 거기에서 느끼는 감탄은 우선 그 정밀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의 하나는 이것이 문법쪽으로도 기여가 크지만 우리 사전의 깊이를 더해 주는 쪽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이동동사’라는 용어는, 물론 불란서 쪽의 용어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홍재성 교수가 처음으로 국어학계에서 쓰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자동사면 자동사 다음에 이동동사나 경쟁동사 따위가 하나 더 추가되면 우리 사전이 보여줄 수

있는 문법정보가 상당히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문형식으로 표시를 해도 좋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 1 문형에서 제 7 문형까지 있다면 이 동사가 제 몇 문형을 만드는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해 주면 경쟁동사라든가 이동동사 같은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나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좋은 문법정보를 제공하리라는 기대를 주는 연구가 근래에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것들을 잡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조사의 경우 '조차'의 문제 같은 것에 대해 논문이 많이 나왔고, 어미 같은 경우 가령 '거든' 다음에는 명령법이나 청유형밖에 올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도 기여가 되겠지라는 사전을 만드는 쪽으로 기여가 많이 되리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학생들에게도 그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홍교수의 발표를 듣고 나니 국어사전의 앞날이 상당히 밝아지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그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홍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치하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문법정보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아직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넣는 단계로, 이것이 두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보다 더 앞단계는 지금 국어사전에서 잘못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시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못 처리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글을 쓸 때에 단편적

으로 지적을 한 것들이기도 한데 가령 '첫사랑, 첫눈'의 '첫'이 사전에 접두사로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은 얼마든지 새로운 명사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서 관형사이지 접두사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여기서 가다가 첫빨간 기와집'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자어 쪽에서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사라고 되어 있는 한자어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화려' 해 놓고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려'가 명사이려면 '화려가, 화려를' 이런 조사를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쓰여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또 '이런 화려가', '저런 화려보다' 같은 관형어의 수식도 받지 못합니다. '분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해 놓고 명사라 그러고 무엇 무엇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줄을 긋고 '—하다' 이렇게 하는데 명사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제어로 '분명하다'로, '화려하다'로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하나 있다면 표제어로 생산적인 어근, 즉 어간이 아니고 또 다른 명사도 아닌 어근을 올리자는 어떤 약속을 해서 '화려'나 '분명' 같은 것을 놓고 그것을 어근이라고 표시해 주는 길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스마트'라는 것이 외래어로 받아들여져서 사전에 올려진다면 비슷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스마트하다'가 올려져야지 '스마트' 해 놓고 명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사전」 「한글큰사전」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 사전들에는 한자성어들을 올려 놓고 이것을 또 명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상당히 여러 개를 찾

아서 그 일부를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 가령 ‘朝不食夕不食’(아침에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해 놓고 명사, ‘家貧則思賢妻’(집이 가난하면 어진 부인을 생각한다) 해 놓고 명사라고 하는 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단계 이전에 현재 우리 사전이 안고 있는 잘못된 문법정보를 시정하는 일이 더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요사이 금강댐 성금 내놓은 데에 보니까 어떤 단독회사에서 11억원을 내놓았는데 이 11억 하나만 딱 떼어서 우리 국어사전 만드는 데에 주면 우리 국어사전을 얼마나 좋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농담삼아 옆사람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신문인가에 법정스님이 쓴 얘기에 스포츠로 국력을 과시하는 사회가 되지 말고 국민의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을 했는데, 정말 국어사전으로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사전을 만드는 바탕이 될 연구들에 많이들 힘써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고, 그런 쪽으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 홍교수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재성선생의 연구, 한국어 동사에 관한 연구들은 곧 단행본으로 묶여져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전에서의 뒷풀이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이기동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보통 토론회에 참석하면 시간에 쫓겨는 게 보통이라서 제가 handout

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 참조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모임을 굉장히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Wierzbicka Anna. 이 분이 1985년도에 낸 책으로 ‘사전편찬과 개념분석’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사전편찬과 의미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물과 기름 같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편찬이라는 것은 실제 낱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의미론은 의미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사전편찬은 이론적인 공백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또 의미론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바탕이 없는 데서 의미론을 세운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bachelor’라는 낱말 하나 가지고 의미론을 세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의미론은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고답적인 위치에서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손을 더럽히면서 낱말을 분석해 보아야 되고, 그래서 낱말을 신중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론적인 틀이라는 것은 어떤 data 위에 바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모임과 이 분의 얘기를 연결시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재기 선생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미리 원고를 좀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사전

을 만들어 온 경험을 소중하게 살리면서 우리들 나름의 이론적인 체계 및 부족한 분야의 경험 축적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먼저 좀더 나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아까 심재기 선생님이 제안하신 낱말풀이의 한 가지 중에 대치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라는 낱말을 찾으면 ‘간신히, 가까스로, 억지로’라 해 놓았거든요. 그 다음 ‘간신히’를 찾으면 ‘가까스로, 겨우’ 그리고 ‘가까스로’를 찾으면 ‘간신히, 애를 써서, 겨우, 빠듯하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뜻은 못 찾고 맙니다. 내가 뜻을 아는 경우야 사전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의어라고 내놓은 것도 실제로보면 꼭 동의어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억지로, 빠듯하게) 기차 시간에 대었다’ 할 경우에 ‘억지로’는 좀 이상하거든요. ‘다리를 다쳐서(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억지로, 빠듯하게) 걸었다’ 이럴 때도 다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사전의 낱말을 풀이하는데 이 순환적인 것을 100% 제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자르다’를 보면 ‘둥강나게 가로 베다’로 되어 있고 ‘베다’를 보면 ‘끊거나 자르다’로 되어 있어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우리가 찾는 뜻은 못 찾고 맙니다. 그

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표제어보다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꽤거’ 같은 말을 찾으면 ‘통쾌한 거사’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아는 경우야 문제 없지마는 모른다고 할 때는 이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홍망’이 ‘흥기와 멸망’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큰 문제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로 쓰일 때 ‘젓이 지다, 그늘이 지다, 싸움에서 지다, 꽃이 지다……’ 해서 어떤 사전에 보면 일곱 가지 동음이의어를 내놓았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이 과연 동음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의어예요. 왜냐 하면 어떤 물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두번째로 사전을 잘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소용이 없는 풀이가 있어요. ‘구나’의 경우 ‘혼자 스스로 세삼스러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고 ‘네’도 ‘스스로 감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끝맺는 어미’로 되어 있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 사전의 뜻을 바탕으로 이 두 개의 마침표 중에 어느 것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할 때는 아마 결국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사전의미를 꼭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의미와 문맥의미를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다’라는 낱말을 보면 1번 풀이는 ‘무엇을 어디에 닿게 하다’라고 해서 예로 ‘수



화기를 귀에 대다, 배를 육지에 대다, 일  
에 손을 대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  
번 풀이에는 '대다'를 풀이하면서 또 '대  
다'를 썼거든요. '맞대다' 할 때의 '대  
다'가 '대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대어 비교하다'는 것은 '대는' 어떤  
목적이지 '대다' 그 자체의 의미는 아니  
거든요. 문맥에서 어떤 주어진 문장에 쓰  
인 다른 낱말과 결합해서 나오는 뜻이지  
'대다' 자체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결이 되게 하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이것은 '대다'의 결과지요. 어떤  
물건을 '대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  
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독립된 하나의 뜻  
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구요. 4번 같은 것은 '정  
해진 시간에 닿다'로 되어 있어 자동사  
로 풀이해 놓았는데 1번 같은 풀이는 '닿  
게 하다'해서 타동사로 풀이해 놓았거든  
요. 여하튼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사  
전을 만들 때는 경말로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그 다음에, 만약 '대다'에 1에서 9번  
까지 아홉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할 때 이  
것을 또 어떤 방법으로 배열을 하느냐 하  
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가지만 예로  
들면, 8번 '물을 어느 곳에 들어가게 하  
다'는 큰 1번 안에 예문으로 집어 넣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 사전  
을 만든다면 1번 안에 집어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더 나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할 때, 아까 심재기 선생님께  
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쓰이고 있는  
사전을 한번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낱말이라든지 어미라든지 토씨라든지 이  
런 데에 대한 논문이 수백 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정리  
해 가지고 사전의 풀이로 쓰는 방안을 모  
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의  
풀이가 짧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  
요. 어제 우리 곁에 있는 이상섭 교수님  
께서 *Oxford English Dictionary* 예를 보  
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풀이가 짹  
짹한 종이로 5,6페이지까지 나가는 게 있  
거든요. 참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꼭  
풀이의 길이를 짧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발  
표하신 분들께서 보충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이현복:** 아까 유만근 선생께서 대충 체  
가 못다한 점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  
려주셨는데 저도 대체로 같은 의견입니  
다. 작년에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유만근  
교수도 같이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밀표  
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특히 규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특수기호를 몇 개 동원하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음장단에서  
중간길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  
합어 문제 등을 처리할 때 혹시 많은 데  
이타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면 좀 필요할  
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하나, 아무리 사전에 발음표기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표  
준발음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음악의 악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악곡이 있어서 리듬이 있고 높낮이, 가락이 있는데 악보를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노래로 썼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성악가가 잘못하면 엉터리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발음사전은 일종의 말의 악보인데 아무리 리듬과 장단따위가 잘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지켜 쓰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맞춤법의 장단이라든지 기타 문제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만근 교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과히 복잡하지만 않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근: ‘어디’의 ‘어’와 ‘언제’의 ‘어’를 같은 음소로 보아야 될까요, 다른 음소로 보아야 될까요? ‘어린이’의 ‘어’하고 ‘어른’의 ‘어’, ‘업고 다닌다’의 ‘어’하고 ‘없어요’의 ‘어’를요.

이현복: 네, 그 얘기도 간단히 줄여서 하지요. 짧을 때는 /어/[A]요 길 때는 /어:/[a:]여서, ‘벌(罰)’ 받는 것 하고 날아다니는 ‘벌’인데, 그것 말고 또하나 짧은 중앙화한 모음 [ə] 같은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A]의 소리값도 길게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아홉, /여:/[ja:l]할 때는 후설이고 낮은 모음이면서 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데, 지금 젊은 층에서는 겨우 하나 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음운분석 문제에 있어서는 기능부단 문제도 생기고 대립이 되는 낱말의 짝들이 몇 개가 되

느냐 하는 것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에는 그냥 장단에 따른 하나의 음소로 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만근: 저는 그런데 반폐모음을 짧게 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가령 ‘처음부터’ 그럴 때 ‘처:음부터’라고 안 하고 ‘처음부터’인데 짧게 하고요, 또 ‘너희들, 저희들’ 그럴 때도 ‘너, 저’로 짧고 입을 적게 벌리고 합니다. ‘넣는다’를 어떤 사람은 ‘넣:는다’라고 길다고 하는데 저는 짧으면서 반폐모음을 씁니다. 술병(瓶), 술병(病)은 다 같이 짧으면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홍재성: 그동안 제가 사전관계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 처음이어서 저는 이쪽의 전문가이신 이익섭 선생님께서 될 수 있으면 비판적인 논평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개인연구활동에 대해서 과찬을 이렇게 해주시고 사회자께서 거기 덧붙여서 책광고까지 해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이익섭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터놓고 의논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약되어서 자료를 다 제시 못해드렸습니다.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나 동사가 되는 항목인 경우에 현재 사전에서의 처리가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명사로 쓰일 수 없는 경우에 전부 명사로 처리한 예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한자어의 경우는 중요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근이 독립된 명

사로 쓰일 수 있는 경우라도 지금 현행 한국어사전에는 하위표제어로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나 동사가 될 수 있다든가 동사인 경우에는 자동사나 타동사로 사용이 된다는 지적 이외에는 그 항목의 서술이 전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위표제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정의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상당히 좋고 또 하나는 基語와 그 파생어 사이의 아주 중요한 언어학적 관계를 사전 속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처리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되고 자동사나 타동사로 쓰인다는 것 이외에 전혀 다른 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관계’를 명사로서 서술하고 마지막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사로 되어 있었는지 타동사로 되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하다’의 경우에는 ‘관계’의 의미와 ‘관계하다’의 의미가 1:1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하다’는 어떤 구문 속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갖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철수는 그 모임에 관계했다.” 같은 구문에서 보아로는 기관이나 단체가 되어야지 인물명사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명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와 관계를 맺었다.”의 ‘관계했다’는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특별한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는 제 분석의 대칭동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구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데 이것을 ‘관계하다’는 자동사나 타동사로 쓰인다는 정도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당한 결핍으로 보이

는데 이런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사관계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통사적인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근에다 접사를 결합시켜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만드는데 사전에는 전부 다 표제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동형과 피동형, 사동형과 비사동형 사이의 의미관계가 절대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의 경우에 ‘보이다’가 ‘보다’의 피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보다’ 앞에 오는 보어명사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피동형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거든요. “산이 보인다”는 되지만 “장을 보다, 사무를 보다, 손해를 보다”인 경우에는 피동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전에서 이런 정보가 전부 다 체계적으로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양쪽으로 쓰이는 동사가 많은데, 타동사구문에서 목적보어로 사용이 되는 명사와 자동사구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대개의 경우 분포가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품사분류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많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정말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사전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토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 예정시간의 30분이 이미 지났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하실 분……

심재기: 지금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인지…… 순차적

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형식이니까 정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적 정의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다 바람직하게 쓰인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자는 관점에서였습니다. 이기동 선생님도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피해야 될 유형으로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 ‘겨우’는 ‘간신히’로 ‘간신히’는 다시 ‘겨우, 가까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단 순대치형으로, 아주 나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원대치형이라 했던 것으로 ‘홍망’을 ‘홍기와 멸망’으로 해놓으니까 더 어려워졌거든요.

또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메타언어형입니다. ‘나’를 보더라도 ‘제 1 인칭 대명사’라고 했는데 ‘나’를 몰라 사전을 찾는 경우도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설명했나 궁극해서 전혀 문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퍼보았을 때 과연 ‘나’에 대해서 좋은 의미가 떠오를 것이냐 의문입니다. 영문법을 막 공부하는 우리집 막내딸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너 이거 누가 한 것이냐?” “네, 제 1 인칭 대명사가 했어요”라고 웃기는 얘기로 대답했는데 과연 그렇게 대처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냐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전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냐를 다시 생각하면서 메타언어에 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를 못했던 것이니까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으실텐데, 시간은 너무 지나고 또 밤도 아까부터 기다리고 해서 더이상 진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이 토론회를 보시고 느끼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사전편찬의 방향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김석산선생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산:** 요약은 짧게 해야만 요약이 되는데 제가 토론자들의 말을 요약해야 될지 또는 발표논문들 요약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제 연구실에 있는 한국어대사전에서 ‘사람’이란 낱말을 찾아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사름’ 해가지고 [고어]하고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안 넣는 것 같아요. 사전에 너무 특수한 전문적인 용어는 빠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용어는 다 설명이 되어야겠지요.

발음문제에서요, 미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Webster 제 3판 사전과 현행 한국사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bster 3판 사전을 보면 발음이 두 개 표시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발음이 둘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지금 유만근 선생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문제인데요. 핸드아웃에 ‘겨우살이’라는 낱말을 한번 보시지요. 낱말의 정의를 내릴 때는 소위 말하는 genus, 그리고 differential이란 면에서 정의를 내려야 되지요. 사람에게 대면 사람의 genus는 동물이고 사람은 다른 동물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해가지고 differential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우살이’하게 되면 ‘나무에 기생하는 풀’인데 ‘풀’이 하나의 genus가 되겠지요. 그

러면 이 풀은 다른 풀과 어떻게 다르냐 해서 ‘나무에 기생하는’ 이와 같은 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낱말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를 하고 정의가 안 되는 것은 설명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하느님’을 보게 되면 정의가 아니고 길다랗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낱말풀이는 정의 아니면 설명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리고 40페이지 1. 113을 보면 규범적 텍스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미국의 사전, 특히 Webster 사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1판, 2판 지금 3판이 나와 있는데 2판과 3판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2판은 규범적이고 3판은 서술적이에요. 사실 흔히들 말하기를 사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증세영어사전을 한 5년 동안 만드는 데 참여했는데 별 일이 아니고 하나의 고역인 것 같아요. 어떤 고역이냐 하면 Dr. Johnson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전 만드는 일은 하나의 drudgery라고. 고역이에요, 사실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제가 볼 때는 사전이란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객관성을 띠어야 해요. 그리고 사전 만드는 일이 그리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사전 만들기 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지요. 그 자료라는 것이 전부 다 예문이에요. 예문에 입각해가지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게 무슨 규범적인, 어려운 일이겠냐 말이지요. 그와 같은 정의를 내렸을 때 누구도 그 정의가 잘못 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전을 보게 되면 예문이 없이 설명 내지 정의만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객관성을 띠지 않는 설명 내지 정의가 되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예문이 없는 사전은 소위 콘사이스같은 사전이지요. 콘사이스의 특징이 예문이 없는 거고 unabridged 한 대사전의 특징이 예문이 있다는 거지요. 정의 내지 설명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문이 있으면 그것은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을 만들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로 사전을 편찬하기 전에 벌써 몇 년 동안 자료수집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 자료수집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Oxford 사전이나 다른 큰 사전을 보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예문이 수집된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서 정의 내지 설명을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전을 보게 되면 숙어라는 게 없어요. 우리말에 숙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포수’하게 되면 숙어 아니겠어요? ‘가며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란 뜻의. 또 ‘돌았다’ 하게 되면 ‘미쳤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사람 돌았다’ 하면 숙어인지 또 무슨 다른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돌았다’ 했을 때 그것은 과거로만 쓰이지 현재 또는 미래로 안 쓰이지 않겠어요? ‘그는 돌고 있다, 그는 내일 돌 것이다’가 ‘미쳤다’는 뜻으로는 안 쓰이죠? 영어에도 보게 되면 ‘kick the bucket’는 ‘죽다’는 idiom인데 ‘He kicked the bucket’하고 과거형으로만 존재하지 ‘He’s going

to kick the bucket'나 'He'd be going to kick the bucket tomorrow'는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idiom 외에 우리 사전에는 usage 같은 게 없어요. 어떤 낱말이 가령 written이나 colloquial 이나, 문어체나 서체나, substandard나, standard나, taboo나, 이와 같은 usage label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아요. 이런 면을 조금 보완해서 만들면 훌륭한 사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만근: '돌았다'하니 재미있는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요. 50년 전에 '돌았다'는 '기절했던 사람이 깨어났다'는 뜻이었다는데요……(웃음)

김석산: 그래서 말이죠, Webster 사전을 보게 되면 대개 25년 간격을 두고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왜 25년이란 간격이냐 하면 그 동안에 낱말의 의미 또는 용법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유선생이 말씀하듯이 '돌았다'는 뜻이 50년 전에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사용되니까 한 25년마다 한번씩 개정판이 나와야 되겠지요.

사회: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사전편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김석산 선생께서 기술적인 사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말 사전에서 어원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또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사이의 구별문제도 있었는데 공식적 정보 이외에 통시적 정보까지 제공하면 많은 해결이 될 것

입니다. 아까 홍재성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macrostructure를 정할 때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접두사의 처리문제도 있겠는데, 접두사를 중심으로 접두파생어를 한데 묶어서 재배열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들이 전부 모이기 때문에 형태·통사론적인 새로운 정보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배열한 사전으로는 문세영 편 의 「조선어사전」이 있고, 그 이전에는 한·일 대역사전이기는 합니다만 조선총독부 편 의 「조선어사전」이 있는데, 합성어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배열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옥편·자전이 만들어질 때의 전통과 같은 제통의 것이라고 봅니다.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이나 늦었습니다. 정말 이제 등과 배가 달라붙으려고도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어연구소에서 김형규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국어연구소에서 내는 「국어생활」 6집이 곧 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국어사전 특집으로 나오는데,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라든가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문제라든가 사전편찬과 문법문제 또 사전의 주석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권 경 근〉